

# 地 形 學

朴 魯 植 · 朴 東 源

## 1. 序 言

지난30년간 우리나라의 地形學은 長足の 발전을 하여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地形學界가 이룬 업적을 다시한번 고찰하여 보고 앞으로의 展望을 하여 볼 수 있는 位置에 온것 같다. 이러한 意味에서 필자들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地形學界가 걸어온 발자취를 간단히 더듬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筆者들은 本論文을 쓰기전에 몇가지 事項을 分明히 하여 두고자 한다.

(1) 本論文은 1945年 우리나라의 光復以後에 나온 研究成果만을 收錄하고 分析한 것으로 研究業績이 如何間에 1945年 光復以前의 論文은 分析 收錄하지 아니 하였다.

(2) 地形學은 매우 廣範圍한 學問이므로 記述의 便宜上 地形營力을 爲主로 하여 다음과 같이 細分하였다.

1. 河川地形
2. 侵蝕地形, 斜面發達, 地形發達
3. karst 地形
4. 海岸地形
5. 氣候地形, 周水河地形
6. 構造地形, 火山地形
7. 地形分類, 應用地形
8. 土壤地形

勿論 地形의 區分方式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筆者들은 上記의 區分方式이 本稿에서는 다른 方式보다 有利하다고 생각하였다.

(3) 論文이 둘이상의 地形分野에 관련 되었을 경우에는 더 關係가 있다고 生覺되는 하나의 地形分野에 넣어서 分析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同一한 論文이 둘이상의 地形分野에서 論及되는 수도 있다.

(4) 우리나라의 地形學은 直接 間接으로 外口의 地形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최소한 지난 30년간의 外口에서의 地形學發達의 傾向과 研究의 成果에 對해서도 言及하여야 될 必英性은 느끼고 있으나 限定된 紙面때문에 本稿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5) 地形學은 地理學에서 뿐만 아니라 地質學이나 土木學 海洋學等 隣接科學에서로 研究를 하고 있으나 特別히 重要な 論文을 除外하고는 本稿에서는 引用 論及하지 아니 하였다.

(6) 本稿에서는 大略 碩士學位論文以上の 水準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論文만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7) 筆者들의 制限된 能力때문에 훌륭한 論文이 혹시 分析의 對象에서 失수로 누락 되는 수도 있을지 모르니 미리 그러한 可能性에 對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2. 地形學의 研究成果와 傾向

1945年 日本으로 부터의 解放과 더불어 始作된 우리 地形學界는 1950年の 韓國戰爭等 政治的인 不安定때문에 1950年代 末期까지는 이렇다할 학구적인 활동이 없었다. 늦게나마 1959年 朴魯植教授에 의해서 發表된 論文 “韓國扇狀地研究”를 始初로 하여서 1960年代 初부터 積極적으로 地形學연구가 시작되었다. 建國以後 約 10年以上의 空白期間이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地形學을 研究할 風土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思料된다. 2年後인 1961年에 金相昊教授에 의한 “韓國中部地方의 地形發達에 대한 研究”는 朴魯植教授의

堆積地形系統의 論文에 이어서 최초로 發表된 우리나라의 侵蝕地形에 對한 研究로서 가이 上記 두 論文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堆積地形과 侵蝕地形에 對한 研究가 始作되었다 하더라도 過言이 아니다.

便宜上 前述한 地形學分野의 區分順序대로 河川地形에 對해서 먼저 論하여 보겠다.

朴魯植(1959)의 上記 論文以後 河岸段丘에 對한 研究가 우리나라 最初로 鄭璋鎬(1962)에 의해서 영일地域에서 行하여 졌고 뒤이어 任昌周(1973)가 永春地域의 河岸段丘에 對한 研究結果를 發表하였다.

任昌周는 이 河岸段丘가 氣候段丘일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侵蝕基準面의 下降과 관련지어서 그 成因을 考察하여 불려고 하였다.

河川의 營力を 理解하기 爲한 堆積物 自體에 對한 研究가 60年代 後半에는 많이 行하여 졌으며 그 당시에 나온 論文들은 朴東源(1967)의 漢江礫의 圓形度와 形態에 關한 研究, 金禎惠(1967)의 漢江下流 河中島에 關한 研究, 朴東源(1968)의 漢江礫의 圓形度에 關한 研究, 朴東源(1969)의 漢江의 河床變動에 對한 研究等이다.

특히 朴東源(1967, 1968)의 礫의 圓形度와 形態에 關한 論文은 河川堆積物의 性質을 計量的으로 分析하여 불려고 하는데 意義가 있으며 金禎惠(1967)와 朴東源(1969)의 論文은 모두 河床에서 생겨나는 堆積地形을 다룬것으로 河川堆積現象을 河川營力의 立場에서 고찰한 것이다.

1970年代 前半期에는 河川地形에 對한 論文이 1960年代 보다 더 많이 發表되었는데 權赫在(1973)에 의한 落東江三角洲에 對한 研究, 權赫在(1973)의 우리나라 河川의 流況과 河川地形에 對한 研究, 鄭璋鎬(1974)의 北漢江流域 河系網 發達에 對한 定量的 分析, 吳銀圭(1974)의 漢江下流의 沖積地形研究等이 그중 가장 重要한 論文들이다.

지금까지 言及한 論文들 以外에 重要한 河川에 對한 研究로서 金周煥(1973)과 金泰熙(1975)의 研究를 꼽지 않을수 없다. 金周煥은 수많은 Joint를 測定하고 그 結果를 統計的으로 處理하여 河川의 流向과의 關係를 調査하여 보고 兩者가 一定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分明히 하였으며 金泰熙는 우리나라 最初로 航空寫眞을 利用하여 洪水豫想地域을 精確히 설정하고 여기에 기초를 둔 洪水豫防對策을 研究하여 우리나라의 自然재해豫防을 爲해서 重要한 기여를 하였다.

1970年代 前半期의 河川에 關連된 地形學의 일반 動向은 지금까지 분석한 論文에서도 알수 있는 바

와 같이 어떤 뚜렷한 傾向을 表示하지는 않았으며 1960年代에 研究되지 않고 남아있는 諸分野가 거의 골고루 취급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侵蝕地形, 斜面發達,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는 研究對象과 研究方法등이 類似하여 同一한 범주내에서 고찰하여 보는것이 適當할 것이다. 金相昊(1961)의 韓國中部地方의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以後 1960年代 中期에 우리나라는 주로 서울大學校와 慶熙大學校에서 上記의 問題에 對한 研究結果가 많이 報告되었는데 그중에서도 高義長(1965)의 韓國의 山麓緩斜面地形에 對한 研究, 金相昊(1966)의 漢江下流의 低位侵蝕面에 對한 研究, 金相昊(1966)의 pediplain과 pediplanation에 對한 概念說明, 張載勳(1966)의 山麓緩斜面地形에 對한 研究, 元學喜(1966)의 韓國中部와 南部地方의 地形面對比, 朴魯植(1967)의 漢江下流地形面의 分類와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등이 特히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金相昊를 비롯한 서울大學校의 地形學教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分布하는 山麓緩斜面의 特性과 그 形成기구를 分析하였으며, 朴魯植을 비롯한 慶熙大學校의 地形學教室은 地形面分類와 地形面對比, 地形面의 發達等에 더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傾向은 1970年代에 들어 발표된 張載勳(1972)의 南原地域의 山麓緩斜面地形研究, 金相昊(1973)의 中部地方의 侵蝕面地形研究, 張載勳(1973)의 忠州地域의 山麓緩斜面研究, 金萬亨(1975)등의 斜面形要因의 Mesh法的 計量分析에 대한 연구, 吳慶燮(1975)의 北坪周邊의 侵蝕地形研究, 장호(1976)의 江陵周邊의 低位 侵蝕面地形 研究 等の 論文을 보아도 알수 있는 것처럼 別로 變化가 없었다. 特히 最近에 發表된 金萬亨(1975)등의 論文은 斜面形의 要因을 計量地形學의 方法을 利用하여 分析하여 地形의 計量化를 시도하여 보았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地形學에서 가장 重要한 두개의 地形分野에 對한 研究成果와 그 特徵을 간단히 考察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論한 두개의 地形分野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研究되어온 分野는 우리나라의 石灰石地帶에 널리 分布하는 karst地形에 對한 研究이다.

karst地形에 對한 研究는 河川地形이나 侵蝕地形에 對한 研究와 거의 同一한 時期에 우리나라에서 始作되었으며 그 最初의 論文은 鄭璋鎬(1962)의 南韓의 karst地形에 對한 研究이다. 이 以後 鄭璋鎬(1965)는 다시 韓國의 karst地形이란 論文을 발표

하였으며 徐茂松(1969)은 江原道三陟郡一帶의 karst 地形에 關한 研究를 發表하여 鄭璋鎬와 함께 1960 年代 우리나라에서 karst 地形 研究에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最近에 發表된 鄭璋鎬(1975)의 karst 地形과 洪始煥(1975)의 韓國의 洞窟에 對한 研究는 1970 年代에 처음으로 發表된 karst 地形에 對한 論文이며 特히 洪始煥(1975)의 韓國의 洞窟에 對한 研究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未開拓分野로 남아 있는 洞窟學分野의 最初의 論文이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대단히 크다.

우리나라는 三面이 바다에 接해 있음에도 不拘하고 海岸에 對한 研究는 極히 最近에야 이루어 지기 시작 하였으니 60 年代 末에 나온 오건환(1967)의 東海岸의 tombolo와 lagoon에 對한 研究와 黃晚益(1968)의 東海岸正東里一帶의 海岸平坦面에 對한 研究가 우리나라에서 海岸에 關連된 地形에 對한 最初의 論文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70 年代에 들어 와서는 오건환(1970)의 鏡浦에 對한 地形學的인 研究와 朴東源(1975)의 우리나라 西海岸의 干潟地類型에 對한 研究를 제외하고는 주로 高麗大學校의 權赫在教授를 中心으로 하여 海岸에 對한 研究가 進行되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重要한 論文은 崔曷喆(1972)의 宮井里一帶의 海岸地形에 對한 研究, 權赫在(1974)의 黃海岸의 干潟地發達과 堆積物의 起源에 關한 研究, 權赫在(1975)의 韓國의 海岸地形과 海岸分類의 諸問題에 對한 研究等이다.

이 方面의 研究는 干潟地의 干拓을 비롯한 海岸의 開發, 利用, 그리고 海岸오염문제 等等 實生活와 關係가 대단히 많으므로 地質學이나 海洋學等 隣接學問에서도 상당한 研究의 業積이 있는데 主要한 것은 朴容安(1969)의 우리나라 西海岸의 침수 및 침강현상규명과 반담수—염수습지 퇴적층에 관한 층서학적 연구와 김서운(1973)의 우리나라 南東端部海岸의 段丘에 관한 研究,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landsat 영상자료에 의한 아산단 일대의 조석현상에 따른 해안지형에 관한 연구 (1975)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海岸地形學分野는 最近의 學問傾向으로 볼 때 앞으로 急速한 發展이 豫見된다.

氣候地形과 周氷河地形에 對한 研究는 事實上은 侵蝕地形에 對한 研究와 同時에 始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侵蝕地形에서 생기는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氣候地形學的인 方法을 使

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氣候地形學 自體에 對한 研究는 故 金道貞教授의 歸國以後 더욱더 活氣를 띄게 된것 같다. 金道貞(1970)의 濟州道의 構造土에 關한 研究는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構造土의 存在可能性을 시사하는 研究로서 重要한 論文이며 金道貞(1972)의 서울近郊의 花崗岩風化에 對한 氣候地形學의 研究도 岩石의 風化現象을 氣候地形學의 側面에서 다루었다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 하겠다.

構造地形과 火山地形에 對한 研究는 주로 金相昊教授에 依해서 始作되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濟州島의 自然地理(1963)”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火山島인 濟州島의 火山地形을 構造地形學的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연구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나온 楸蔚嶺裂谷에 관한 考察(1964)에서도 裂谷의 生成과정을 構造地形學的인 方法으로 규명하였다. 金道貞(1973)과 강승삼(1975)의 韓國의 火山地形에 對한 研究는 지금까지의 研究를 集大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最近에 發表된 李洙珍(1976)의 濟州島의 寄生火山에 關한 研究는 濟州島에 分布하는 거의 모든 寄生火山의 形態를 調查하여 統計的으로 處理한 論文으로서 濟州島의 火山地形 研究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된다.

地形分類와 應用地形에 對한 研究는 60 年代 中半期以後 國土開發과 國土計劃에 對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크게 촉진 되었다. 現在까지 發表된 主要한 研究는 朴魯植의 首都圈의 地形(1963), 智異山의 地形(1963), 韓國五大江流域의 土地利用을 爲한 地形分類(1964), 大關嶺山地地形(1966), 濟州島의 地形(1967)等과 70 年代에 들어와서 발표된 金萬亭의 洛東江 上流地域의 地形分類에 對한 연구(1970)와 國土開發을 爲한 嶺南圈의 應用地形學的인 研究(1970), 朴魯植(1971)의 韓國의 地形區에 對한 研究, 金萬亭(1972)의 開發을 위한 地形分類의 Mesh法的 評價에 關한 研究等이며 이들은 모두 地域開發과 土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地形學的인 基礎 Data를 제공하자는 것이 目的이었다.

上記의 論文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地形分類와 應用地形에 對한 研究는 거의 大部分 朴魯植과 金萬亭에 依해서 行하여 졌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土壤地形學分野는 우리나라에서 全然 未개척 分野로서 다만 姜永福(1974)의 花崗片麻岩上의 赤色土에 對한 研究가 發表되어 있을 뿐이다. 地形 研究에 있어서 土壤의 重要性이 最近 점차 인식되어 가

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發展이 豫想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地形學者들에 의한 우리나라의 地形研究에 對한 업적을 論하여 보았다. 이에 첨부해서 참고적으로 外國의 地形學者에 의한 우리나라 地形에 對한 研究를 紹介할까 한다. 外國의 地形學者라고 할 경우에 거의 全部가 日本人 學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중에서도 우리나라의 地形研究에 가장 많은 業績을 이룩한 外國人은 단연 日本人 赤木祥彦教授 일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pediment 地形과 侵蝕地形에 관심이 많아 1965년에 朝鮮의 pediment, 1971년에 韓國光州附近의 岩塊流에 對한 研究, 1974년에 우리나라 全國과 영산강 流域의 pediment에 對한 研究, 1975년에 韓國의 pediment에 對한 研究 등을 發表하여 日本人으로서 가장 우리나라 地形研究에 깊이 관여하는 學者가 되었다.

그의 研究方法이나 問題解決方式은 우리나라 學者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의 觀點은 아직도 우리나라 地形學者 全部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아니하다.

우리나라의 地形에 관심을 가졌던 기타의 日本人 學者로서는 多田文男(1970)과 大矢雄彦(1970)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前者는 韓國에서 볼 수 있는 岩塊流에 對한 研究를 氣候地形學的인 觀點에서 行하였으며 後者는 우리나라의 自然環境에 대한 論文에서 概略적으로 우리나라 地形에 對해서 說明하고 있다.

最近에는 日本人 以外的의 外國地形學者 —— 例를 들면 不刊서의 A. Guilcher(1975) —— 들도 우리나라의 地形(특히 海岸地形과 侵蝕地形)에 관심을 갖기 始作하는 듯 하나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30年間 外國人 學者에 의한 우리나라의 地形研究는 結局 주로 日本人 學者에 의한 研究이었다.

지금까지본 外國人의 韓國地形에 對한 研究이외에 韓國人의 外國地形에 對한 研究도 알아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나라의 學術雜誌에 게재된 外國地形에 對한 論文만을 考察할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主要論文으로서 金道貞(1966)의 아이슬란드의 構造土에 對한 研究와 朴東源(1975)의 獨逸 Elbe江 河口의 河川地形에 對한 研究가 그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 接하기 어려운 地形對象을 研究하였다는 사실에 큰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3. 展 望

以上에서 지난 30年間 우리나라의 地形學界가 걸 어온 발자취를 간단히 各 分野別로 細分하여서 고찰하여 보았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解放은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地形學界가 正式으로 學問的인 業績을 쌓기 시작한 것은 約 15年後인 1960年代부터이며 그 後 지금까지 約 15年間 長足の 發展을 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地形學은 여러모로 後進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最近 빠르게 發展하고 있는 世界의 地形學界에 발 맞추어 나갈려고 하면 倍前의 努力을 하여야만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地形學界는 可能한 限 빨리 아직 극히 初步段階에 있는 計量地形學과 寫眞地形學(photo-geomorphology)을 비롯한 여러 地形學의 分野에 관심을 가져서 地形學의 均衡的인 發展을 爲해 적극적으로 研究 매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외람되이 생각한다.

(朴魯植: 慶熙大 教授, 朴東源: 서울大 教授)

### 參 考 文 獻(註)

#### 〈河川地形〉

- 1) 朴魯植, 1959, 韓國扇狀地研究, 慶熙大論文集.
- 2) 鄭璋鎬, 1962, 영월부근의 地形. — 河岸段丘를 中心으로 —, 地理, 서울大師大地理學會,
- 3) 朴東源, 1967, 漢江礫의 圓形度와 形態에 관한 연구, 서울大大學院 碩士論文.
- 4) 金禎惠, 1967, 漢江下流의 河中島에 관한 考察, 梨大大學院 碩士論文
- 5) 朴東源, 1968, 漢江礫의 圓形度에 관한 研究, 地理學 3號, pp. 11-18
- 6) 朴東源, 1969, 漢江의 河床變動에 對해서, 서울大文理大學報, pp. 171-183.
- 7) 權赫在, 1973, 洛東江 三角洲의 地形研究, 地理學, 8號, pp. 8-23.
- 8) 金周煥, 1973, Joint와 河川流向과의 關係 高찰, 서울大大學院 碩士論文
- 9) 林昌周, 1973, 永春地域의 河岸段丘, 서울大 大學院 碩士論文
- 10) 權赫在, 1973, 우리나라 河川의 流況과 河川地形,

地理學會報, 6號, pp. 1-9.

- 11) 鄭璋鎬, 1974, 北漢江流域 河網發達の 定量的 分析, 首都師大 論文集, 6號.
- 12) 吳銀奎, 1974, 漢江下流의 沖積地形研究, 高大教育大學院 碩士論文.
- 13) 金泰熙, 1975, 洪水被害豫想調査方法論에 關한 研究, 應用地理, 1卷 1號, pp. 55-81.

#### <侵蝕地形 斜面發達 地形發達>

- 1) 金相昊, 1961, 韓國中部地方의 地形發達, 서울大 論文集, 理工系 10輯, pp. 111-123.
- 2) 高義長, 1965, 韓國의 山麓緩斜面 地形에 對한 研究, 慶熙大 碩士論文.
- 3) 金相昊, 1966, pediplain 및 pediplanation, 師大學報, 8卷 1號, pp. 89-96.
- 4) 金相昊, 1966, 漢江下流의 低位侵蝕面에 對한 研究, 서울大 博士論文.
- 5) 張載勳, 1966, 山麓緩斜面地形에 對한 研究, 只山先生華甲論文集, pp. 195-211.
- 6) 張載勳, 1966, 山麓緩斜面地形에 對한 研究, 地理學, 2號, pp. 35-42.
- 7) 元學喜, 1966, 韓國中部와 南部地方의 地形面對比, 慶熙大 碩士論文.
- 8) 朴魯植, 1967, 漢江下流地形面의 分類와 地形發達에 對한 研究, 慶熙大 博士論文.
- 9) 張載勳, 1972, 南原地域의 山麓緩斜面研究, 地理學, 7號, pp. 11-23.
- 10) 金相昊, 1973, 中部地方의 侵蝕面地形研究, 서울大 論文集, 理工系 21輯, pp. 85-115.
- 11) 張載勳, 1973, 忠州地域의 山麓緩斜面 研究, 地理學研究, 1卷 1號, pp. 93-108.
- 12) 金萬亨·朴魯植, 1975, 斜面形要因의 Mesh法的 計量分析, 應用地理, 1卷 1號, pp. 5-53.
- 13) 吳慶燮, 1975, 北坪周邊의 侵蝕地形 研究, 서울大 碩士論文.
- 14) 장 호, 1976, 江陵周邊의 低位侵蝕面地形研究, 서울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 <카르스트 地形>

- 1) 鄭璋鎬, 1962, 南韓의 karst 地域,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2) 鄭璋鎬, 1966, 韓國의 karst 地形, 只山先生華甲記念 論文集, pp. 213-239.
- 3) 徐茂松, 1969, 江原道三陟郡一帶의 karst 地形에 關한 研究, 慶熙大 碩士論文.
- 4) 鄭璋鎬, 1975, karst 地形, 地理學會報, 13號, pp. 1-7.
- 5) 洪始煥, 1975, 韓國의 洞窟, 地理學會報, 13號, pp. 8-12.

#### <海岸地形>

- 1) 오건환, 1967, 韓國東海岸의 tombolo와 lagoon에 對하여, 경북대학원 석사논문.
- 2) 黃晚益, 1968, 東海岸 正東里 一帶의 海岸平坦面地形研究, 地理學, 3號, pp. 1-10.
- 3) 오건환, 1970, 경포의 지형학적 연구, 강릉교대 논문집, 2집, pp. 163-173.
- 4) 崔昌喆, 1972, 宮井里 一帶의 海岸地形, 高大教育大學院 碩士論文.
- 5) 權赫在, 1974, 黃海岸의 干潟地發達과 그 堆積物의 起源, 地理學, 10號, pp. 1-12.
- 6) 權赫在, 1975, 韓國의 海岸地形과 海岸 分類의 諸問題, 高大教育大學院 教育論叢 3號, pp. 73-88.
- 7) 朴東源, 1975, 우리나라 西海岸의 干潟地類型, 地理學會報, 14號, pp. 1-9.
- 8) 박용안, 1969, 방사선탄소 C<sup>14</sup>에 의한 한국 서해안 침수 및 침강현상규명과 서해안에 발달한 반담수-염수습지 퇴적층에 관한 층서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5권 1호, pp. 57-66.
- 9) 김서운, 1973, 韓國 南東端部(方魚津-浦項) 海岸에 發達하는 段丘에 關한 研究, 지질학회지, 9권 2호, pp. 89-121.
- 10) 해양개발연구소, 1975, Landsat 영상자료에 의한 아산만 일대의 조석현상에 따른 해안 지형에 관한 연구.

#### <氣候地形, 周水河地形>

- 1) 金道貞, 1970, 濟州島의 構造土에 關한 研究, 駱山地理 1號, pp. 3-10.
- 2) 金道貞, 1972, 서울 近郊의 花崗岩風化에 대한 氣候 地形學的 研究, 駱山地理, 2號, pp. 41-49.
- 3) 金道貞, 1973, 韓國의 霜蝕의 類型, 地理學 8號 pp. 1-7.

#### <構造地形 火山地形>

- 1) 金相昊, 1963, 濟州島의 自然地理, 地理學, 1號, pp. 2-14.
- 2) 金相昊, 1964, 楸哥嶺裂谷에 對한 考察, 師大學報, 6卷 1號, pp. 156-161.
- 3) 金道貞, 1973, 韓國의 火山地形, 地理學會報, 7號, pp. 1-9.
- 4) 康勝三, 1975, 韓國의 火山地形, 清州大學學報, 20號, pp. 46-55.
- 5) 李洙珍, 1976, 濟州島에 分布하는 寄生火山에 關한 研究, 建國大學校 碩士論文.

#### <地形分類>

- 1) 金萬亨, 1970, 洛東江上流地域의 地形分類에 關한

研究, 安東教大 論文集 第 3輯.

- 2) 朴魯植, 1971, 韓國의 地形區, 地理學, 6號, pp. 1-24.
- 3) 金萬亨, 1972, 開發을 위한 地形分類의 Mesh 法的 評價에 관한 研究, 安東教大 論文集, 第 5輯.

#### <應用地形>

- 1) 朴魯植, 1963, 首都圈의 地形, 首都 廣域圈調查報告書.
- 2) 朴魯植, 1963, 智異山地形, 智異山地開發調查報告書.
- 3) 朴魯植, 1964, 韓國五大江流域의 土地利用을 위한 地形分類研究, 慶熙大 論文集.
- 4) 朴魯植, 1966, 大關嶺山地地形, 大關嶺山地綜合開發方向.
- 5) 朴魯植, 1967, 濟州島의 地形, 濟州島 特定地域建設綜合計劃調查報告書.
- 6) 金萬亨, 1970, 國土開發을 위한 嶺南圈의 應用地形學的 研究, 文教部學術研究報告書 社會科學系 2.

#### <土壤地形>

- 1) 姜永福, 1973, 花崗片麻岩上의 赤色土에 對해서, 地理學研究, 1권 1호, pp. 64-92.

#### <外國人에 依한 韓國地形研究>

- 1) 赤木祥彦, 1965, 朝鮮의 Pediment, 地理學評論, 38卷 11號.
- 2) 多田文男, 1970, 韓國에서 볼 수 있는 岩塊流, 東北地理.
- 3) 大矢雄彦, 1970, 韓國의 自然, 地理, 16卷 11號.
- 4) 赤木祥彦, 1971, 韓國 光州附近의 岩塊流 氣候의 乾燥化의 證據로서의 東部 Asia의 關折, 東北地理.
- 5) Yoshihoko Akag; 1974, Pedi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Yeong San River Basin, Inst. of Geography, Tohoku Uni.
- 6) 赤木祥彦, 1975, 韓國의 Pediment, 地學雜誌, Vol. 84.
- 7) Guilcher, A, 1975, A Report on a preliminary survey of the geo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s of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제출된 보고서, pp. 1-9.